

초등학생의 금융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정수진* · 이바름**

요약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기에 속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독립 소비 행위 경험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돈은 중요한 것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며, 돈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래 생활비나 돈을 잘 모으는 방법 등을 포함한 금융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금융 관련 구체적인 내용 요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분석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일부 금융 습관과 용돈 관리 측면의 차이, 가정에서 돈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가에 따라 용돈 관리 측면과 돈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차이를 발견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첫째, 가정에서 금융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생이 기초 금융 역량을 갖추도록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합리적 소비를 위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합리적 돈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 셋째, 학생들의 돈에 대한 높은 관심을 관심 수준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실행하고 해결하게 할 수 있는 금융교육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 관련 지식, 금융 행위, 바람직한 금융 태도 등이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주제어 돈에 대한 태도, 초등 금융교육, 금융 역량, 금융 관련 성취기준

.....

* 제1저자, 서울 보라매초등학교 교사(bisho20@nate.com)

** 교신저자, 인천 신대초등학교 교사(mintbl@hanmail.net)

I. 서론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금융 상품 결정에 있어 여윌돈이 생기면 예금과 적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한진수, 2017. p.29). 그러나 지금은 주식, 채권, 펀드, 가상화폐 등으로 다양해졌고, 파생상품들도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신용 카드 결정이나 보험, 대출 상품 역시 금융회사마다 조건이 다르고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를 선택해야 하는 등 금융 관련 의사결정 상황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판매될수록, 금융소비자들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기나 불완전판매를 당할 위험이 증가한다(이소연 외, 2020, p.22).

최근 ‘디지털 시대의 금’으로도 불리며 각광 받던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추락하였는데 이로 인한 손해가 개인투자자(개미), 유색 인종, 젊은 층에 집중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한국일보, 2022. 07. 10.).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 유색 인종, 젊은 층의 손실 규모가 큰 이유로 가계 평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기존 투자(부동산과 주식)에서는 불가능했던 부의 축적 가능성을 가상화폐에서 찾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식 시장의 경우도 지난해 3월부터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었기도 하나, 큰 돈을 잃고도 주식을 끊지 못해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주식 중독 현상 상담도 56%가량 증가하였는데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뒤 가족에게까지 어려움을 주게 돼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매일신문, 2021. 03. 03).

전문가들은 “사회구조가 불확실할 때 주식 등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져 ‘묻지마’식 투자가 이뤄진다”며 “나만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의 일종인 ‘포모현상’(FOMO, Fear Of Missing Out); 소외된다는 두려움에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러한 묻지마 투자 현상이 20-30대뿐만 아니라 10대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대박을 꿈꾸는 한탕주의가 기저에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식·가상화폐 투자실패가 종종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뉴시스, 2022. 07. 01).

미국 중앙은행 총재였던 Greenspan(2001)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분명히 금융 관련 지식의 결여에서 비롯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금융 지식이 있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의 부정적 결과를 피하거나 경감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정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한진수, 2016, p.19 재인용).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금융 시장에서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금융 관련 의사결정을 하고 이용 가능한 금융 서비스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역량(financial capability)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금융 역량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의 결과도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혹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도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며, 반성적인 태도를 지닐 것이다(한진수, 2017, p.26). 이러한 금융 역량은 금융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학교에서는 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적절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육 목표의 설정이나 교육방식, 콘텐츠 등의 구체적 세부 추진 전략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이소연 외, 2020, p.22) 정규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 학습기회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현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인 금융교육 내용은 중학교에서 다루고 있다. 학생들은 미래의 금융인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의 금융인이며 금융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삶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를 통한 금융 교육이 상당히 늦게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금융 관련 습관이나 가치관의 형성은 장기간의 축적이 필요하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금융교육보다는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학습이 강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한진수, 2016, p.21; 한진수, 2017, p.35) 체계적인 기초 금융교육이 가능한 초등학교에서의 바람직한 금융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금융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에 관심 있어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금융 역량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금융 지식, 합리적인 금융 행위, 바람직한 금융 태도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금융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적절한 시기의 선택과 내용 요소 및 방법의 선택에 있어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분석

1. 학생들의 돈(금융) 관련 인식 연구

사람이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금융 관련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강지현·천혜정(2010)은 초등학생의 돈에 대한 가치관 및 금융 지식에 따라 용돈 소비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하였는데,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학생일수록 용돈을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진수(2016)는 돈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가 돈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지식(인지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금융 행위를 합리적으로 실천하는 능력(행동적 측면)과 돈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정의적 측면)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학생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조사하였다(한진수, 2016, p.19). 그 결과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지닌 학생, 돈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돈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에 돈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이, 돈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거나 관심이 적은 학생들에게는 금융 생활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는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돈 쓰는 방법이나 저축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학생도 30% 정도 되었고 교사보다는 부모로부터 돈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을 비추어볼 때 금융 역량의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의 형평성 있는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종렬·송기호(2017)는 한국과 일본, 중국 초·중학생의 돈과 금융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학생들이 돈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도 가장 높고, 미래의 경제생활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용돈 관리 습관이나 바람직한 태도 형

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실제 합리적인 금융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나 바람직한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볼 때 학생들의 돈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에게 돈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이나 태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우리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였고, 인터넷 은행, 디지털 화폐 등 디지털 금융의 발달, 가계 부채 증가를 포함한 금융 위기, 금융 사기 증가 등 금융 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돈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돈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면 앞으로 금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은 보편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한진수, 2017, p.35).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서 금융과 관련된 내용은 사회과와 기술가정과를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진수(2018)는 사회과와 기술가정과 필수과목의 금융 관련 성취기준을 대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금융교육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융교육과 관련된 성취기준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금융교육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하였는데 특히 초등학교 사회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금융 관련 성취기준이 1개였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0개로 줄었다. 초등 실과 교과([6 실03-03] 용돈 관리의 필요성을 알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고려한 합리적인 소비 생활 방법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한다.)에서 금융교육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금융 생활보다는 소비 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합리적 선택의 기준도 자신의 필요와 욕구라는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 생활과 소비 생활은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이지만 선택에 있어 자신의 필요와 욕구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나 태도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목의 성취기준([9기가03-04] 청소년기 소비 성향과 소비 환경을 이해하고,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실천한다. 등) 또한 초등학교 성취기준과 마찬가지로 금융 생활보다는 소비 생활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말에 고시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아직 1차 시안까지 개발된 상황이긴 하지만 2차 시안은 주로 1차 시안에서 개발된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토대로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을 개발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1차 시안에서 금융교육이 어떻게 다뤄질지를 살펴보면 향후 몇 년간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을 예상해볼 수 있다.

초등 사회과에서는 소비자 권리 관련 내용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었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되었고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제시되었다. 물론 소비자의 권리도 금융교육 내용 요소 중 하나로, 금융교육 관련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등의 내용 요소와 비교해 볼 때 금융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루고 있는 맥락도 경제교육에 가까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사회과에서 금융교육 내용이 강화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과의 금융 관련 성취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한 수(1개)와 내용 요소로 제시되었으며 금융 생활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다루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실과과 금융 관련 성취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한 수(1개)이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합리적 소비 생활이 강조되었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활자원으로서 용돈을 다루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이고 올바른’이라는 가치 지향적 용어가 추가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과 금융 관련 성취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한 수(2개)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금융 생활보다는 소비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교육과정 시기별 금융교육 관련 성취기준

학교급	과목	성취기준		
		2009 개정	2015개 정	2022 개정 1차 시안
초등 학교	사회	초등학교 3~4학년군 사회 8단원 〈경제생활 과 바람직한 선택〉 합리적 소비를 위해 필 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 과 소비자 권리를 행사 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6사-] 시장경제에서 가계와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소비자의 권 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분석한다.
	실과	초등학교 5~6학년군 실과(가정생활) 4단원 〈쾌적한 주거와 생활 자원 관리〉 생활 자원의 의미와 관 리의 중요성을 알아 효 율적인 시간 관리, 합 리적인 용돈 관리를 통 하여 현명한 소비자 로 서의 능력과 태도를 기 를 수 있다.	[6실03-03] 용돈 관리의 필요성을 알고 자신의 필요와 욕 구를 고려한 합리적인 소비생활 방법 을 탐색 하여 실생활에 적용한 다.	[6실02-01] 생활자원의 의미를 알 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 간과 용돈은 제한된 소 중한 생활자원임을 이 해하여 합리적이고 올 바른 관리 방법 을 찾아 실생활에 적용한다.
중학교	사회	사회 6단원 〈경제생활 의 이해〉 합리적 선택을 위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야 함을 인식하고, 재 화나 서비스의 가격 이 외에 합리적 선택 을 위 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 (예, 소득, 정보, 신용 등)에 대해 탐구한다.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경제생활을 탐구하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 한 생활을 하기 위해 자산 관리의 필요성 을 인식한다.	[9사(일사)08-03] 일 생 동안 이루어지는 경 제생활을 조사하고, 경 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한 금융 생활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9사(일사)08-02] 일 생 동안 이루어지는 경 제생활을 분석하고, 경 제적으로 안정적인 생 활을 위한 금융 생활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학교급	과목	성취기준		
		2009 개정	2015개 정	2022 개정 1차 시안
	기술·가정	(가정생활) 3단원 <청소년의 자기 관리> 청소년기의 소비 특성 및 소비 환경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비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평가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소비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가정생활) 6단원 <진로와 생애 설계> 생애 설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생애주기 관점과 경제적 자립 관점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다.	[9기가03-04] 청소년기 소비 성향과 소비 환경을 이해하고,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실천한다. [9기가03-05] 소비자 권리와 역할을 이해하고,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상황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책임 있는 소비생활을 실천한다.	[9기가02-08] 소비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비자 정보를 활용한 구매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실천한다. [9기가02-09] 책임있는 소비자로서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을 인식하고 소비 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와 해결방안을 탐색하여 자신의 소비생활에 적용한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0년에 체계적인 학교 금융교육을 위해 필요한 초·중·고 금융교육의 표준적인 내용을 담아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한 지 10년 후인 2020년, 급속하게 이루어진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정해 발표했다.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은 금융교육의 지침 및 기준으로써 학생들이 금융 역량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금융 행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요소를 제시하고 있어 (한진수, 2017, p.37) 금융교육에 있어 주요한 길라잡이가 된다. 표준안의 내용 중 초등학교의 내용 영역과 성취기준을 정리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이소연 외, 2020, p.59).

〈표 2〉 2020년 금융교육 표준안 - 초등학교 내용 영역과 성취기준

대영역	중영역	성취기준
I. 금융과 의사 결정	합리적 금융생활	[초-I-1-①] 상품 거래에 돈이 필요함을 알고,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초-I-1-②] 돈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개인 재무관리	[초-I-2-①] 일상생활에서 돈 관리가 중요함을 이해한다.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초-I-3-①] 은행과 같은 우리 주변의 금융회사가 하는 일을 이해한다. [초-I-3-②] 금융 생활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II. 수입과 지출관리	예산	[초-II-1-①] 계획을 세워 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초-II-1-②] 용돈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용돈기입장을 작성할 수 있다.
	수입	[초-II-2-①] 소득의 다양한 원천을 확인한다.
	지출	[초-II-3-①] 구매 의사결정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초-II-3-②] 다양한 지불 수단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수 있다.
III. 저축과 투자	저축	[초-III-1-①] 저축을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초-III-1-②] 다양한 형태의 저축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초-III-1-③] 예적금 계좌를 만들고, 저축하는 습관을 기른다.
	투자	[초-III-2-①] 돈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다. [초-III-2-②] 투자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한다. [초-III-2-③] 투자와 저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IV. 신용과 부채관리	신용관리와 대출	[초-IV-1-①] 신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신용 사용에는 비용이 수반됨을 이해한다.
	부채관리	[초-IV-2-①] 부채의 의미를 이해한다.
V. 보험과 은퇴설계	위험관리와 보험	[초-V-1-①]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초-V-1-②] 위험관리 전략으로서 보험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용돈 관리, 중학교의 경우 소비 생활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금융교육 표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용돈 관리나 소비 생활 외에도 금융회사, 다양한 지불 수단, 개인 정보 보호,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 관리, 위험 관리 전략으로서의 보험 등의 기본적인 금융 지식 이해와 합리적인 금융 행위, 바람직한 금융 태도 등이 균형있게 다루어진다면 실질적인 금융 역량 함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한진수(2016)와 유종렬·송기호(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돈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검사 도구의 신뢰도가 검증되었기도 하거니와 조사 당시가 2015년이었으므로 비슷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약 7년 후인 현재 학생들의 돈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양상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설문 조사 도구는 금융 관련 습관, 독립 소비 행위 경험, 돈에 대한 교육 여부, 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돈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은 다시 기초 내용과 심화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조사 도구를 기초로 하되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돈에 대한 태도에 행동 범주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용돈 관리 행동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 돈에 대해 알고 싶은 심화 내용 항목에 2020년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중 초등학교 성취기준 관련 요소(금융회사, 신용, 부채, 보험 등)를 추가하였다. 표준안은 금융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필수적 요소를 제시한 것이므로 학습 요소별 학생들의 관심이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면 초등학교 금융교육 내용 선정과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 중 학생들에게 낯설 것으로 예상되는 용어(투자, 신용, 부채)는 금융교육 표준 교재에 서술된 설명과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문항 질문의 방식을 상대방이 ‘나’에게 질문하는 방식이 아닌 ‘내가 나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여 보다 진솔한 답변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경험과 관련한 문항은 ‘그렇다’와 ‘아니다’ 가운데 하나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고, 인식이나 태도 관련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나 관심 정도 등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고자 하였다.

2. 조사방법 및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다. 이에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를 편의 표집하여 총 125부를 배포하여 전량 회수하였다. 이중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12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 26.0 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조사 대상자 특성

선행된 한진수(2016)의 연구를 통해 혼자 힘으로 소비 의사결정을 하거나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독립 소비행위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크게 높아지고 있어, 고학년 학생들이 돈의 효용과 가치 인식 관련 실제 경험이 많을 것이고 이들의 돈에 대한 인식과 태도 측정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롭다고 여겼다. 이에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분류되는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총 125명이었고, 모든 자료를 회수하였으며 부실한 자료 3개를 제외한 122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3>에 제시되어 있듯이 초등학교 5학년 71명, 6학년 51명, 성별은 남학생이 56명, 여학생이 66명의 조사 결과가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한다. 조사는 2022년 7월에 이루어졌으며 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본 연구는 현재 초등학생들의 돈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평가나 규명을 목적에 두지 않았으며, 자료를 기초로 초등 금융교육의 방안을 모색해 본다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초등학교 5학년	30	41	71(58.2%)
초등학교 6학년	26	25	51(41.8%)
합계	56(45.9%)	66(54.1%)	122(100.0%)

IV. 조사 결과 및 분석

1. 기술통계분석

(1) 금융 관련 습관

돈과 관련한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4개의 항목을 질문하였으며, 학생들은 ‘그렇다’와 ‘아니다’ 가운데 하나로 응답하였다. 〈표 4〉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수와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비교에는 한진수(2016)에서 조사하였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비율을 서술하여, 두 수치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2015년도에 비해 학생들이 정해진 날에 용돈을 받는다고 한 수치는 48.4%,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한 응답은 86.7%, 은행이나 우체국에 돈을 저축하고 있다는 응답은 64.8%, 용돈 기입장이나 지출 내역을 작성하고 있다는 응답은 28.1%로 7년 전과 비교하여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표 4〉 금융 관련 습관(비율)

항목	그렇다	아니다	비고 (한진수, 2016)
나는 정해진 날에 용돈을 받는다.	59(48.4%)	63(51.6%)	50%
나는 돈을 모으고 있다.	106(86.9%)	16(13.1%)	87%
은행이나 우체국에 돈을 저축하고 있다.	79(64.8%)	43(35.2%)	69%
용돈 기입장이나 지출내역을 작성하고 있다.	34(28.1%)	87(71.9%)	26%

(2) 독립 소비 행위 경험

학생들이 혼자 힘으로 소비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 1개의 항목을 질문하였고 이 결과를 아래 <표 5>에 제시하였다. 독립 소비 행위 경험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 수는 88명으로 전체의 72.1%에 해당한다. 2015년도에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초등 고학년 학생들의 독립적인 소비 행위 경험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 독립 소비 행위 경험

항목	그렇다	아니다	비고 (한진수, 2016)
사고 싶은 것(옷, 책 등)을 혼자서 사러 간 적이 있다.	88(72.1%)	34(27.9%)	44%

(3) 돈에 대한 교육 경험

돈에 대한 교육 경험 여부의 파악은 교육을 하는 주체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첫 번째 문항은 부모님 혹은 가족 등 학교 외부의 주체를 통해서 학습하였는가와 관련되고 두 번째 문항은 학교교육을 통해 돈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두 문항에 각기 ‘그렇다’라고 나온 응답의 수 및 비율은 <표 6>과 같다.

조사 결과, 부모님 혹은 가족으로부터 배운 적이 있는 학생 수는 88명으로 72.1%에 해당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유사한 정도의 수치이다. 한편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적이 있는 학생 수는 89명(73.0%)으로 지난 조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5학년 교육과정에서 실과 교과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졌음 혹은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더라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금융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교사들이 있음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6〉 돈에 대한 교육 경험

항목	그렇다	아니다	비고 (한진수, 2016)
돈(쓰는 방법, 저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모님 또는 가족으로부터 배운 적이 있다.	88(72.1%)	34(27.9%)	73%
돈(쓰는 방법, 저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적이 있다.	89(73.0%)	33(27.0%)	41%

(4) 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7개 항목을 질문하였고, 각 질문에 대한 5점 척도 조사 결과를 〈표 7〉에 나타내었다. 돈에 대한 태도는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선행된 연구와 비교·제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돈에 대한 태도 중 가장 높게 나온 항목은 ‘돈은 중요한 것이다’로 평균 수치가 4.6에 달하였다. 이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4.11),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3.89), ‘모금(기부나 후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3.64), ‘좋아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3.49), ‘될 수 있는 한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3.33), ‘친구들 사이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어도 괜찮다’(2.22) 항목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돈은 중요한 것으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며, 이와 함께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될 수 있는 한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가 부정 항목임에도 비교적 높은 응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돈을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돈을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저축이나 절약에 대한 중요성에만 경도되지 않고, 돈을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 역시 자신의 효용과 기업의 생산 활동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임을 균형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7〉 돈에 대한 태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돈은 중요한 것이다.	1 (0.8%)	2 (1.7%)	6 (5.0%)	27 (22.3%)	85 (70.2%)	4.60	.737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4 (3.3%)	4 (3.3%)	32 (26.4%)	42 (34.7%)	39 (32.2%)	3.89	1.007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2 (1.7%)	8 (6.6%)	19 (15.7%)	38 (31.4%)	54 (44.6%)	4.11	1.007
될 수 있는 한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5 (4.1%)	18 (15%)	47 (39.1%)	32 (26.7%)	18 (15%)	3.33	1.040
좋아하는 것, 가지고 싶 은 것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2 (1.7%)	15 (12.5%)	45 (37.5%)	38 (31.7%)	20 (16.7%)	3.49	.970
모금(기부나 후원)을 하 는 것이 중요하다.	4 (3.3%)	15 (12.4%)	32 (26.4%)	40 (33.1%)	30 (24.8%)	3.64	1.088
친구들 사이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어도 괜 찮다.	36 (3.3%)	40 (33.6%)	28 (23.5%)	11 (9.2%)	4 (3.4%)	2.22	1.083

(5) 용돈 관리 행동

용돈 관리 행동에 대한 항목은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다. 이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적 측면 중 행동적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기개발된 태도 관련 항목이 실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돈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연결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학생들이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3개 항목을 질문하였고, 각 질문에 대하여 위와 동일하게 5점 척도로 답변을 받은 결과를 〈표 8〉에 나타내었다.

조사 결과, ‘용돈에서 조금이라도 저축할 것을 먼저 계획한다’가 평균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돈을 사용한 후에는 계획대로 사용했는지 생각해본다’(3.16), ‘나는 용돈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계획을 세운다’(3.10) 항목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표 8〉 용돈 관리 행동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나는 용돈을 사용하기 전 에 항상 계획을 세운다.	19 (15.6%)	26 (21.3%)	25 (20.5%)	28 (23.0%)	24 (19.7%)	3.10	1.363
용돈을 사용한 후에는 계 획대로 사용했는지 생각 해본다.	17 (13.9%)	21 (17.2%)	28 (23.0%)	38 (31.1%)	18 (14.8%)	3.16	1.273
용돈에서 조금이라도 저 축할 것을 먼저 계획한다.	9 (7.4%)	23 (18.9%)	27 (22.1%)	31 (25.4%)	32 (26.2%)	3.44	1.267

(6) 돈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기초)

돈에 대한 기초 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나 알고 싶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6개 항목을 통해 조사하였고, 각 항목에 대한 5점 척도 평균 값을 아래의 〈표 9〉에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나의 미래 생활에 어느 정도 돈이 들지 알고 싶다’는 항목이 평균 4.0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진수(2016)의 연구에서도 현재의 생활에 어느 정도 돈이 들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학생 비율보다 미래에 어느 정도 돈이 들지 알고 싶다는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측된 것이다. 이는 자신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미래의 생활비에 대한 관심이 6년 전과 현재 모두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돈을 잘 모으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3.84)가 높게 나타났는데 미래 생활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돈을 잘 모으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항목에 이어 ‘지금 나의 생활에 어느 정도 돈이 들고 있는지 알고 싶다’(3.75), ‘돈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3.59), ‘돈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3.51), ‘신용 카드나 전자화폐(예: 교통카드) 이용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3.44) 순으로 관심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돈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기초)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돈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	6 (5.0%)	17 (14.0%)	30 (24.8%)	36 (29.8%)	32 (26.4%)	3.59	1.167
돈을 잘 모으는 방법에 대 해 알고 싶다.	8 (6.7%)	12 (10.1%)	19 (16.0%)	32 (26.9%)	48 (40.3%)	3.84	1.249
지금 나의 생활에 어느 정 도 돈이 들고 있는지 알고 싶다.	9 (7.4%)	13 (10.7%)	23 (19.0%)	30 (24.8%)	46 (38.0%)	3.75	1.273
나의 미래 생활에 어느 정 도 돈이 들지 알고 싶다.	9 (7.4%)	5 (4.1%)	17 (14.0%)	33 (27.3%)	57 (47.1%)	4.02	1.207
돈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에 대해서 알고 싶다.	8 (6.6%)	14 (11.6%)	33 (27.3%)	40 (33.1%)	26 (21.5%)	3.51	1.148
신용카드나 전자화폐(예: 교통카드) 이용 방법에 대 해 알고 싶다.	10 (8.3%)	16 (13.2%)	35 (28.9%)	31 (25.6%)	29 (24.0%)	3.44	1.224

(7) 돈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심화)

돈에 대한 심화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나 알고 싶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5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 항목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되 새로 개정된 금융교육 표준안의 학습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한 것이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빈도 및 평균 값을 아래의 〈표 10〉에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돈에 대해 알고 싶은 기초 내용에 비하여 평균 점수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심화 내용 중 가장 관심도가 높았던 항목은 ‘회사를 세우는 것에 대해 알고 싶다’로 평균 3.57이었다. ‘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다’(3.40), ‘주식과 투자에 대해서 알고 싶다’(3.34), ‘신용이 있을 때의 좋은 점과 부채에 대해서 알고 싶다’(3.11),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하는 일을 알고 싶다’(2.92)가 뒤를 이어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해당 질문들을 심화 내용이라고 표현하긴 하였지만 학생들 수준보다 어려운 내용 요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서 제시한 기초 내용이 금융 생활과 관련

한 포괄적인 범주라면 심화 내용은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표준적인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돈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기초)에서 미래에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 회사나 투자, 보험 등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 학생들은 전자와 후자를 별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즉 돈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 모으는 방법 등 돈을 관리하는 방법도 배우고 싶어하는데 이를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 막연한 관심 수준에만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돈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심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가 하는 일을 알고 싶다.	19 (15.7%)	33 (27.3%)	30 (24.8%)	17 (14.0%)	22 (18.2%)	2.92	1.333
주식과 투자에 대해 알고 싶다.	19 (15.8%)	21 (17.5%)	16 (13.3%)	28 (23.3%)	36 (30%)	3.34	1.464
신용이 있을 때의 좋은 점 과 부채에 대해 알고 싶 다.	17 (14.0%)	23 (19.0%)	34 (28.1%)	24 (19.8%)	23 (19.0%)	3.11	1.309
보험에 대해 알고 싶다.	12 (9.9%)	17 (14.0%)	33 (27.3%)	29 (24.0%)	30 (24.8%)	3.40	1.275
회사를 세우는 것에 대해 알고 싶다.	12 (9.9%)	11 (9.1%)	32 (26.4%)	28 (23.1%)	38 (31.4%)	3.57	1.290

2. 변수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조사 항목 가운데 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과 가정 내 학습 여부 및 학년을 검증하였다.

성별의 경우, 5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금융 습관 영역 중 ‘은행이나 우체국에 돈을 저축하고 있다’, ‘용

돈 기입장이나 지출 내역을 작성하고 있다'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녀 학생들의 차이에 대한 t통계값은 각각 -2.00, -2.401이고, 유의확률은 각 .048, .018로 유의수준 .05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용돈 관리와 관련하여 '나는 용돈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계획을 세운다' 항목, 돈에 대한 태도 중 '모금(기부나 후원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목, 돈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 중 기초 영역에 제시되었던 '나의 미래 생활에 어느 정도 돈이 들지 알고 싶다' 항목 또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사이의 차이에 대한 t통계값이 각각 -2.378, -2.040, -2.282이고, 모든 항목의 차이가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항목

항목		남자 평균 (표준편차)	여자 평균 (표준편차)	t 통계값	유의 확률
금융 습관	은행이나 우체국에 돈을 저축하고 있다.	.55(.502)	.73(.449)	-2.00	.048*
	용돈 기입장이나 지출내역을 작성하고 있다.	.18(.386)	.37(.486)	-2.401	.018*
용돈 관리	나는 용돈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계획을 세운다.	2.79(1.385)	3.36(1.297)	-2.378	.019*
돈에 대한 태도	모금(기부나 후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3.42(1.066)	3.82(1.080)	-2.040	.044*
돈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	나의 미래 생활에 어느 정도 돈이 들지 알고 싶다.	3.75(1.430)	4.26(.933)	-2.282	.025*

부모님 또는 가족으로부터 돈(쓰는 방법, 저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 경우로 표현된 가정 내 돈 관련 교육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했다(〈표 12〉). 금융 습관 영역 중 '나는 정해진 날에 용돈을 받는다' 항목의 t값이 3.250이고 유의확률이 .002로 나타나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들은 용돈 관리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용돈 관리의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의 t값은 각각 3.457, 3.353이고 유의확률은 모두 .001로 나타났다. 세 번째 항목 또한 t값 2.278, 유의확

를 .024로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돈에 대한 태도 중 ‘돈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와 ‘될 수 있는 한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항목의 t값은 2.032, 2.040으로 나타나고 유의확률은 각각 .048, .044로 나타나 모두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다만, 가정 내 학습을 한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될 수 있는 한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이 차이가 의미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보완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12〉 가정 내 학습에 따라 차이가 있는 항목

	항목	학습 경험 있음	학습 경험 없음	t 통계값	유의 확률
금융 습관	나는 정해진 날에 용돈을 받는다.*	.57(.498)	.26(.448)	3.250	.002**
	나는 용돈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계획을 세운다.	3.35(1.356)	2.44(1.160)	3.457	.001**
용돈 관리	용돈을 사용한 후에는 계획대로 사용했는지 생각해본다.	3.39(1.263)	2.56(1.106)	3.353	.001**
	용돈에서 조금이라도 저축할 것을 먼저 계획한다.	3.60(1.246)	3.03(1.243)	2.278	.024*
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4.02(.889)	3.56(1.211)	2.032	.048*
	될 수 있는 한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3.45(1.014)	3.03(1.058)	2.040	.044*

한편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금융 습관 중 ‘용돈 기입장이나 지출 내역을 작성하고 있다.’의 항목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13〉). 6학년에 비하여 5학년 학생들이 더 많이 기입하고 있었으며 이들간 차이는 .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5학년 1학기 실과에 용돈 관리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현 시점 혹은 바로 직전까지 용돈 관리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실제 작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6학년 학생들이 전년도에 학습을 하였음에도 5학년과의 차이가 컸던 것은 용돈 기입장이나 지출 내역 작성에 대한 학습 경험이 습관이 되어 지속적으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용

돈 관리 및 금융 관련 교육이 온라인 수업으로 시행된 것도 저조한 학습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다.

〈표 13〉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항목

	항목	5학년	6학년	t 통계값	유의확률
금융 습관	용돈 기입장이나 지출 내역을 작성하고 있다.*	.36	.18	2.288	.024

3. 상관관계 분석

설문을 통해 조사한 항목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였다. 몇몇 항목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주목할만한 항목간 상관관계를 언급하였다(〈표 14〉 참고).

첫째, 돈에 대한 가정 내 학습 경험은 정해진 날에 용돈을 받는 금융 습관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가정 내에서 용돈을 통해 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용돈 사용 계획을 세우는 행위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돈을 저축하는 것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용돈을 사용한 후에는 계획대로 사용했는지 생각해 보는 행위 또한 은행이나 우체국에 돈을 저축하는 것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로써 용돈 사용 전후 계획을 세우는 행위가 저축 행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다. 용돈 사용 후 계획대로 사용했는지 점검해보는 행위는 용돈기입장이나 지출 내역을 작성하는 행위와도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던 반면 용돈 사용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과는 음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었다. 용돈 교육에 있어서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이 중요하나 학생들은 두 가지 모두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용돈 중 저축을 계획하는 행위는 돈을 모으는 행위, 은행이나 우체국에 저축하는 행위, 용돈 사용 계획, 계획한 대로 사용했는지 점검하는 것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돈에 대한 태도 또한 하위 항목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다수 드러났다.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항목은 ‘돈은 중요한 것이다’라는 항목과 양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돈이 중요하다’라는 항목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항목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좋아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에 돈을 쓰는게 중요하다'고 하는 항목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사이에 있어서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친구들 사이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어도 괜찮다'고 하는 항목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돈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도출하였다. 한편으로, '모금(기부나 후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항목은 '될 수 있는 한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와 양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었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항목과 음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는 전술한 것처럼 그릇된 금융 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교육이 필요하다.

이밖에 돈에 대해 돈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은 기초와 심화를 불문하고 모든 항목에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표 14〉 조사 항목별 상관관계

A. 돈 모으기와 쓰기										
	습관1	습관2	습관3	습관4	독립 소비 행위	가정 학습 경험	학교 학습 경험	용돈 관리1	용돈 관리2	용돈 관리3
습관1	1.00									
습관2	.133	1.00								
습관3	-.041	.272**	1.00							
습관4	.210*	.190*	.147	1.00						
독립 소비 행위	.053	-.133	.001	-.018	1.00					
가정 학습 경험	.272**	.029	.001	.064	-.101	1.00				
학교 학습 경험	-.075	-.073	-.063	-.030	-.008	-.008	1.00			
용돈 관리1	.123	.028	.268**	.194*	.072	.072	.031	1.00		
용돈 관리2	.114	.067	.226*	.281**	.091	.091	.017	-.677**	1.00	
용돈 관리3	.168	.271**	.341**	.172	.044	.044	.009	.506**	.511**	1.00

B. 돈에 대한 태도							
	태도 1	태도 2	태도 3	태도 4	태도 5	태도 6	태도 7
태도 1	1.00						
태도 2	.401**	1.00					
태도 3	.497***	.135	1.00				
태도 4	.026	.166	.057	1.00			
태도 5	.107	.059	.302**	-.106	1.00		
태도 6	.002	.337**	-.200*	.262**	-.096	1.00	
태도 7	-.092	-.063	-.130	-.168	.236*	.008	1.00

C. 돈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기초, 심화)											
	기초1	기초2	기초3	기초4	기초5	기초6	심화1	심화2	심화3	심화4	심화5
기초1	1.00										
기초2	.682**	1.00									
기초3	.475**	.550**	1.00								
기초4	.540**	.567**	.676**	1.00							
기초5	.464**	.473**	.646**	.598**	1.00						
기초6	.291**	.318**	.402**	.472**	.414**	1.00					
심화1	.391**	.427**	.503**	.452**	.551**	.395**	1.00				
심화2	.481**	.567**	.499**	.538**	.489**	.289**	.534**	1.00			
심화3	.466**	.480**	.491**	.531**	.523**	.371**	.531**	.735**	1.00		
심화4	.414**	.391**	.451**	.535**	.452**	.368**	.530**	.566**	.574**	1.00	
심화5	.313**	.398**	.366**	.451**	.386**	.389**	.508**	.504**	.437**	.576**	1.00

4. 회귀분석 결과

설문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이 돈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들이 조사한 항목들 중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에 한진수(2016)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성별, 용돈 수령 여부, 저축 여부, 용돈 기입장 작성 여부와 더불어 학년과 가정에서 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가 추가로 고려되었다. 또, 돈에 대한 태도 중 일부만을 사용하지 않고 전 항목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은 기초와 심화 내용을 나누어 진행하였다.

기초 내용에 관한 회귀 분석에 앞서 VIF 값을 살펴본 결과 모두 1~2 사이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돈에 대해 배우고 싶은 내용을 51.4% 설명하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량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용돈 기입장이나 지출내역 작성 여부’($B=.365$, $p=.015$),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항목($B=.527$, $p=.000$), ‘될 수 있는 한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항목($B=.211$,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15〉).

〈표 15〉 돈에 대해 배우고 싶은 내용(기초)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VIF
(상수)	-.738	.855		-.864	.390	
성별	.255	.132	.138	1.929	.057	1.207
학년	.183	.128	.099	1.432	.155	1.109
용돈 수령 여부	-.055	.131	-.030	-.421	.674	1.187
저축 여부	.163	.133	.084	1.224	.224	1.107
용돈기입장 작성 여부	.365	.147	.176	2.486	.015*	1.179
가정 학습 여부	-.178	.153	-.086	-1.165	.247	1.276
돈에 대한 태도1	-.011	.106	-.009	-.099	.921	1.727
돈에 대한 태도2	.527	.074	.585	7.079	.000***	1.600
돈에 대한 태도3	-.071	.080	-.077	-.887	.377	1.788
돈에 대한 태도4	.211	.064	.237	3.314	.001**	1.197
돈에 대한 태도5	.080	.069	.085	1.157	.250	1.257
돈에 대한 태도6	.083	.067	.096	1.247	.215	1.398
돈에 대한 태도7	.013	.062	.015	.205	.838	1.208

$R^2(\text{adj. } R^2) = .569(.514)$

동일한 변수를 중심으로 돈에 대해 배우고 싶은 내용(심화)에 대한 회귀 분석 또한 실시하였다. 이 또한 VIF 값을 살펴본 결과 모두 1~2 사이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 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은 45.2%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량 또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항목($B=.677$, $p=.000$)만이 심화 내용에 대한 학습 내용 요소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6〉).

〈표 16〉 돈에 대해 배우고 싶은 내용(심화)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VIF
(상수)	.097	1.044		.093	.926	
성별	-.089	.162	-.042	-.549	.584	1.212
학년	-.045	.156	-.021	-.291	.772	1.114
용돈 수령 여부	.107	.160	.051	.672	.503	1.187
저축 여부	.047	.163	.021	.291	.771	1.108
용돈기입장 작성 여부	.284	.178	.120	1.591	.115	1.191
가정 학습 여부	-.041	.185	-.018	-.224	.824	1.280
돈에 대한 태도1	-.009	.129	-.006	-.068	.946	1.728
돈에 대한 태도2	.677	.091	.651	7.419	.000***	1.600
돈에 대한 태도3	.025	.098	.024	.257	.798	1.786
돈에 대한 태도4	.149	.078	.146	1.916	.058	1.200
돈에 대한 태도5	.032	.084	.030	.379	.705	1.275
돈에 대한 태도6	-.027	.081	-.027	-.331	.742	1.405
돈에 대한 태도7	.115	.076	.116	1.522	.131	1.215

R2(adj. R2) = .514(.452)

V.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금융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진수(2016)에 기반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48.4%가 정해진 날에 용돈을 받고 있고, 86.9%가 돈을 모으고 있으며 64.8%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돈을 저축하고 있었다. 용돈 기입장이나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용돈을 관리하는 학생의 비율은 28.1%로 전반적인 금융 습관은 2015년에 실시한 한진수(2016)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독립된 소비 행위의 경험은 과거 조사에서 44%로 나타났으나 72.1%로 크게 증

가하였다. 조사 대상이 동일 집단은 아니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독립 소비 행위 경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학생들의 돈에 대한 교육 경험을 묻는 질문에 ‘부모님 또는 가족으로부터 배운 적이 있는’ 경우는 72.1%로 기존의 73%와 유사한 응답을 보였다.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적이 있다’는 경우는 73%로 4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록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금융 교육이 양적으로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와 실과 과목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돈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을 가능성도 짐작해볼 수 있다.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조사에서 ‘돈은 중요한 것이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0.2%,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3.3%로 긍정 응답 비율을 합하면 ‘93.3%’였다. 이 외에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의 긍정 응답 비율도 각 ‘76%’ ‘66.9%’로 다른 질문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학생들이 돈은 중요한 것으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며, 돈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돈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으로는 미래 생활비에 대해 가장 높은 관심(74.4%)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돈을 잘 모으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학생(67.2%)도 많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금융회사(32.2%), 신용(38.3%), 보험(48.%) 등 금융 관련 구체적인 내용 요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에 대한 관심이 금융 지식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이 검증을 통해 ‘은행이나 우체국에 돈을 저축하고 있다.’, ‘용돈 기입장이나 지출 내역을 작성하고 있다.’, ‘용돈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계획을 세운다’ 등 일부 금융 습관과 용돈 관리 측면에서 성별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가정에서 돈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 경우 ‘나는 용돈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계획을 세운다.’ ‘용돈을 사용한 후에는 계획대로 사용했는지 생각해 본다.’ ‘용돈에서 조금이라도 저축할 것을 먼저 계획한다.’ 등의 용돈 관리 항목과 ‘돈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등 돈에 대한 태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회귀 분석을 통해서도 돈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용돈 기입장이나 지출내역 작성하는 금융 습관과

돈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태도 및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기초 학습 내용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심화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는 돈이 많을수록 좋다는 태도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돈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로부터 학교 금융교육의 방향과 학생들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가정에서 돈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 경우 용돈 관리와 돈에 대한 태도 항목 수치가 높았던 만큼 가정에서 자녀 금융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학교에서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금융교육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 금융 역량의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역량의 격차는 개인과 가족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학생들이 기초적인 금융 역량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독립 소비 경험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합리적 소비를 위한 의사결정과 합리적 돈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이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술하였듯이 올바르게 적절한 소비를 위한 의사결정 연습도 중요하나 이러한 소비 선택들을 조금 더 큰 맥락인 돈 관리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루의 시간을 계획하여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기별 혹은 한 해의 계획 안에서도 생각해보아야 방향성을 잃지 않고 목표하는 바를 위해 꾸준히 갈 수 있듯이 개별적인 합리적 선택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전체의 돈이 얼마이고, 이 중 얼마를 소비하고 저축할 것인가, 어떻게 모으거나 관리할 것인가 등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의사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 실과과에서 용돈 관리가 다루어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는 돈을 무엇을 사는데 얼마를 지출할 것이냐 하는 소비적 관점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 중 얼마를 모을 것이냐, 돈을 어떻게(저금, 예금, 적금 등) 모을 것이냐, 여러 금융상품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등 금융의 관점에서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잘 모으는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금융 역량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교육적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에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금융회사나 투자, 보험 등

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생들의 돈에 대한 높은 관심을 관심 수준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실행하고 해결하게 할 수 있는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그동안 초등학교 금융교육은 용돈 관리중심으로만 다루어져 왔는데 그 외에도 금융 회사, 다양한 지불 수단, 개인 정보 보호,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 관리 등 실질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금융 관련 지식, 금융 행위, 바람직한 금융 태도 등이 균형 있게 다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뉴시스(2022. 07. 01.). “실종 초등생 가족 가상화폐 투자 손실…생활고 추정(종합).”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1_0001928435&cID=10809&pID=10800 (검색일: 2022. 07. 20.)
- 매일신문(2021. 03. 03.). “수익률 -22%, 묻지마 주식투자 늪 빠진 2030세대.”
<https://news.imaail.com/page/view/2021030312520427772>
 (검색일: 2022. 07. 20.)
- 사회과 시안 개발 연구팀(은지용 외)(2022).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공개토론회 자료집. https://www.edunet.net/nedu/boardsvc/selectBoardForm.do?boardNum=101&menu_id=688&catNum=1&atclNum=57136 (검색일: 2022. 07. 20.)
- 실과/기술·가정과 시안개발 연구팀(권유진 외)(2022). 2022 개정 실과(기술·가정)과 교육과정 시안개발 연구 토론회 자료집. https://www.edunet.net/nedu/boardsvc/selectBoardForm.do?boardNum=101&menu_id=688&catNum=1&atclNum=57082#none (검색일: 2022. 07. 20.)
- 유종렬·송기호(2017). “한·중·일 초·중학생의 돈과 금융에 대한 의식 비교 조사,” 교육논총, 제24권 제2호, pp. 57-72.
- 이소연·권유진·김재근·김태환·한진수·박형준(2010).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E 2020-2.
- 한국일보(2022. 07. 10.). “추락하는 가상화폐… 재미·유색인종·청년에 타격 집중.”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709570005878?did=NA> (검색일: 2022. 07. 20.)
- 한진수(2016).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돈에 대한 인식과 태도,” 교육논총, 제36권, 제2호, pp. 17-38.
- _____(2017). “왜 학교 금융교육이어야 하는가,” 금융교육연구, 제2권, pp. 25-49.
- _____(2018). 2015 “개정 금융교육 교육과정의 분석과 개선안 모색,” 금융감독연구, 제5권, 제1호, pp. 39-65.
- 한진수·장경호·박형준(2015). 학교 금융교육 실태 조사.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 Greenspan, A. (2001).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and literacy*. Speech at the NCEE Annual Conference.

Abstract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Fina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eong, Sujin* · Lee, Ba Reu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money among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the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increasing experiences of independent consumption behaviors, thought of 'money is important, more is better, and studying money is important.' Interest in finance, including future living expenses and how to save money well, was high, but interest in specific financial-related content elements was relatively low. During this analysis, we found differences in some financial habits and pocket money management by gender, and differences in pocket money management and attitude toward money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had learned about money at home.

From these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can effectively provide financial education at home, and ultimately, systematic financial education in schools should be accompanied so that all students can have basic financial competence. The fact that not only decision-making for financial reasons but also decision-making for rational money management should be dealt with; It was suggested that financial knowledge, financial behavior, and desirable financial attitudes that enable financial decision-making should be dealt with in a balanced way.

Key words Attitude Toward Money, Elementary Financial Education, Financial Competency, Financial Standards

투고 2022. 05. 11.

심사 2022. 06. 10.

게재 2022. 06. 18.

* Seoul Boramae Elementary School(bisho20@nate.com)

** Inchon Sindae Elementary School(mintbl@hanmail.net)